

완주군, 독거노인 보호 총력

생활관리사·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폭염 대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가동

완주군이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독거노인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5월말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등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각 읍면사무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특히 폭염특보 발생 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특보상황이 신속하게 발령되어 1,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직접 방문과 전화 확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며,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주말에도 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근무 태세를 갖추어 어르신들 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에는 삼례 김 모 어르신(75) 연락이 닿지 않아 긴급 출동한 결과 폭염 속에 발을 매고 있어 집으로 안내한 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당부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독거노인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폭염대비 행동 요령 포스터를

무더위쉼터(경로당)에 게시해 어르신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을 마쳤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상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강화하고 있다.

박상일 완주군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및 환자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우리 지역 독거노인의 안전 상황 확보와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대비 보호 계획을 점검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서 전달

신규 5개 제품 선정

진안군은 27일 홍삼가공품 품질 인증을 받은 신규 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해 이번에 선정된 5개 제품을 신청한 업체대표자와 진안홍삼 품질인증위원회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실에서 전달식과 함께 시음회가 진행됐다.

이번 신규 품질인증 제품은 한국고려홍삼(유정종)의 홍삼농축액, 송화수홍삼(송화수)의 진안홍삼정, 용담호에 핀꽃(이재선)의 홍삼액, 글로리아홍삼(고영만)의 글로리아홍삼, 아디다함고려홍삼(김영길)의 아디다함고려홍삼액 5개 제품으로 홍삼연구소의 성분 검사 및 가공시설의 환경 및 위생상태, 원료산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품질인증 심사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선정되었다.

진안군은 품질인증제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해당 제품들을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연 2회 불시 수거하여 홍삼성분검사를(홍삼 진세노사이드 성분, 조사포닌 함량, 잔류농약검사 등) 이행하고, 사업장 현장 점검과 위생사항 점검 등을 통해 품질관리 및 지도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진안홍삼이 작년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지자체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최근 군에서는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품의 품목 다양화를 위하여 진안 홍삼연구소와 협력하여 현 2개 품목(홍삼추출액, 홍삼농축액)에서 5개 품목(차, 절편, 정과, 분말, 환)으로 확대하여 총 7개 품목으로 조려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 주말시장 운영 준비 '착착'

진안군은 관내 농·특산물의 시장 내 유통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중 주말마다 '진안고원 주말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농산물, 먹거리 부스 참여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색있는 먹거리 및 농산물 선물세트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먹거리가 고객유입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먹거리 코너 외에 기존 시장 내 식당가 운영자들과 함께 흑돼지 국수 등 지속적인 메뉴개발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안산 흑돼지 전문판매점 오픈, 흑돼지 셀프식당 준공, 로컬푸드 판매코너 설치, 주차환경개선사업, 주말시장 홈페이지 개설, 점포등 내부 고객선 설치 및 워터포싱, 고향할머니장터 카드기 설치 및 전용 비닐봉투 배부 등을 완료하는 등 주말시장 개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이항로 군수는 "주말시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갈 것이며 진안시장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배넛소 지원사업 완료 19농가에 57마리 공급

무주군은 27일 2농가에 배넛소(송아지) 6마리를 전달한 것을 마지막으로 총 5회에 걸쳐(19농가 57마리 지원) 진행해 왔던 2016 배넛소지원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공급된 배넛소에는 일정 기간 사육 후 최소 수정란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배넛소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걸쳐 19농가 57마리를 공급했다.

최소 육성 특화사업(청단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해 희소가치가 높은 최소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 7월 현재까지 65마리 이식 완료, 8월까지 12농가 70마리 생산 예정, 2020년까지 2천 마리 사육기반 갖출 계획)은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연계 효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받는 농가는 송아지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30개월 이후에 가축시장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상환하면 된다.

농가들은 "한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송아지 가격도 같이 올라서 따로 사서 키우는 것을 염두대기는 힘들었다"며 "배넛소를 지원받게 돼서 기쁜 만큼 잘 키워서 돈도 벌고 이점에 번

식수 기반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군 배넛소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현재 255농가 889두가 지원됐으며, 최소 육성 특화사업과 연계해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하고 한우 사육 기반을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농산물가공센터, HACCP 인증 취득

장수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자체에서 설립한 가공센터 중 최초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썬(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취득했다.



농가의 농산물가공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해썬 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과채주스, 액상차, 과채가공품, 잼류 등 4가지 품목으로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해썬(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내부 시설을 보완, HACCP 선행요건관리를 충족했으며 HACCP 관리 및 직원대상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등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수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0년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 사업으로 설립돼 현재 50여

또한 위생적인 가공시설을 활용해 장수드림 생사과즙, 사과칩, 사과잼, 오미자청 등을 생산, 연중 사과 20톤, 오미자 3톤 이상을 소비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주군, 농업인대학 교육생과의 간담회 개최

'소통 1번지' 완주군이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업인대학 교육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고, 미래 농업농촌의 가치 형성을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 '열공' 중인 교육생들과 지역 농정현안과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여서 의미가 남달랐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고, 미래 농업농촌의 가치 형성을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 '열공' 중인 교육생들과 지역 농정현안과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여서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소통간담회에서는 교육생들이 농업인 대학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군정발전방향 등의 다양한 의견

을 무기명으로 메모지에 작성해 '소통 상자'에 취합한 뒤 군수가 직접 메모지를 뽑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열린 소통의 시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대학 교육생들은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할 따름이라며, 농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행정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반가운 마음을 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농협 '연세대 학생과...여름방학 캠프' 호응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은 여름방학을 맞아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초등학생 60여명을 대상 장수초등학교 강당에서 '연세대학생과 함께하는 농촌 초등학생 여름방학 교육캠프'를 실시하여 학부모 및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교육캠프는 연세대학생 1명이 초등학생 3명의 멘토가 되어 <언어와 문화>, <탐구와 사고력>, <창작과 예술>, <활동과 건강>, <진로와 교양>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교육은 대학생들이 체득한 학습노하우 및 다양한 진로방향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고충을 상담 해 줌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뚜렷한 교육목표를 갖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으로 캠프가 진행되었다.

장수농협 김용준 조합장은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 근간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의 진솔하고 실질적인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진 점이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고 자랑하며 "앞으로도 장수농협은 조합원들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은 물론 지역인재를 육성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전안고원 전학산업계
063-430-2951

무주경찰 적상파출소 담당마을별 순찰 강화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적상파출소 정상인 소장은 4대역 근접, 빈집 절도예방,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 등 123공감순찰 활동을 담당마을별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식기를 맞아 수상안전사고 예방요령, 범죄예방요령 등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5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농기철을 맞이해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시정정치를 견고히 하여 절도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정 소장은 "모든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 회관이나 정자나무 밑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요즘이 홍보 할 수 있는 시기다"면서 담당마을별 현지 출동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자"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보건소·의료원 업무협약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는 지난 26일 진안군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진안군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한 자문 및 교육지원,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조 등, 임신부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진안군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시 상담을 해주는 등 관내 임신부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승호 소장은 "군 의료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임신부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건강한 아기를 분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